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February 28 2025 Vol. 950



2월 23일(주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에서 '2025년 나눔온 희망온 자선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개최되었다. (관련 기사 3면). ⓒ기독일보

"고귀한 순교 통해 선교의 문 활짝 열리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갑작스런 강도의 습격으로 세상을 떠난 두 한인 선교사가 현지에서 화장(火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 순서노회(노회장 구규승 목사) 서기 주경봉 목사는 25일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한국에 오면 3월 중 노회장(葬)을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김창열(88)·이리문(58) 목사는 지난 21일 밤 현지에서 강도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다. 김 목사는 순서노회 제12대(1989) 노회장을 역임했다.

김 목사는 은퇴 후 아프리카에서 침술 봉사와 농업 선교를 펼치기 위해 2년 전 마다가스카르로 떠났으며, 그의 사위인 이 목사는 지난해 합류해 함께 사역을 이어왔다고 한다.


故 김창열 목사(왼쪽)와 故 이리문 목사.

두 선교사는 현지 교회 텃밭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바닐라나무 등 유실수 묘목을 심도록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나무 열매를 수확해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또한 우물 파기와 교회 개척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순서노회 주경봉 목사는 "선교사님들의 갑작스런 비보에 노회원들이 모두 놀랐다. 특별히 김창열 목사님은 제 친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며 "생전 농촌목회를 통해 지역의 아프고 힘든 많은 분들을 도우셨다"고 했다

주 목사는 "은퇴하시고 마지막 생명은 선교지에서 마감하시겠다고 다짐하시고 마다가스카르로 가셨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그 희생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복음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 카타르에 예배당 기공식

1월 24일, 중동의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기독교 예배당 기공식이 진행됐다.

기공식에는 카타르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Churches Alliance Qatar, ECAQ) 소속 목회자들과 카타르 정부 관계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사무엘 창 부총무,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 등이 참석했다.

예배당은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질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이 들어설 약 1만8천 제곱미터의 부지는, 다른 8개의 기독교 단체가 있는 '종교단지' 내에 있으며 카타르 정부가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다.

김진영 기자 ➔ 2면에서 계속

사고

사순절 금식으로 선교지 후원에 동참하세요

2025년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수)부터 4월 19일(토)까지입니다. 종교개혁기를 거치며 개신교 내에서 사순절 전통이 약화되었지만, 영성 훈련과 영적 성장과 교회 갱신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기독일보는, 사순절 동안 하루 한끼씩 금식하며 그 금식비(3 달러 x 40일, 총 120 달러)를 모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선교지를 돕는 월드쉐어USA의 '사순절 나눔 금식 캠페인'을 후원합니다.

또한, 올해 사순절 모금액은 LA 산불 피해자들 돕는 데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각 교회들도 사순절 기간 월드쉐어의 금식 모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또 부활절에 선교지에 금식을 통해 모아진 금액을 보냄으로, 선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사계절을 잘 즐기는 것이듯, 영적인 절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들이 이런 절기를 잘 활용하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 캠페인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참여 방법

1. 나눔 금식 동참 의사를 전화(323 578 7933), 이메일(Kangtg1207), 카톡(ID: Chapkang1)으로 전달.

2.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순절 기간 모금된 금식비를 월드쉐어 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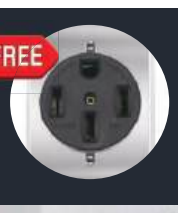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이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트럼프 2기, 교회 대비책은? '동행과 상생 포럼' 열려

3/10(월) 오전 11:30 미주복음방송
미주 한인교회 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

미주 한인교회들의 다음세대 부흥과 교육을 위한 '동행과 상생 포럼'이 오는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미주복음방송(KGBC)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학교' 및 '교육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국 내 한인교회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차세대 교육 목회자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공교육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인교회의 대비책을 논의한다. 특히, 공립학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Lighthouse Mission Church ED 디렉터이자 Head Start ECRES 전문 교육가인 킴벌리 김(Kimberly Kim)전도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 현재 미주 한인교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목회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한인 교회들의 주일학교 운영과 2세 사역자을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이어서 동행과 상생이 신학교와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 양성을 위한 온라인 인증 과정(Online Certificate Program)을 소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 교육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12주 교육 디렉터 온라인 과정'도 공식 발표된다. 이 과정은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과정 수료 후에는 동행과 상생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사전 등록 시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공식 웹사이트 www.TNT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동행과 상생과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며,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행과 상생(Together & Thr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동행과 상생은 미주복음방송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대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사무총장: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가 미주복음방송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부터 시작된 단체이다. 김민선 기자

행사명: 동행과 상생 포럼
일시: 2025년 3월 10일 (월) 오전 11시 30분 (사전 등록자 점심 제공)
장소: 미주복음방송 (KGBC)
주최: 동행과 상생, 미주복음방송
등록: info@TNTUSA.org



효사랑선교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자기 정체성 및 성경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12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3월 10일(월)부터 31일(월)까지 개최한다.

효사랑선교회에서는 매년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66명의 수상자 전원이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천 정치인으로부터 상장,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올해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이며 부제는 1.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n your family? 2.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n your church? 3. 나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n your School? 이다.

대상 2명(각 부분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헤이븐상 2명(11 학년에 한함), 심사위원장 상 4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올해부터는 각 학년별 글짓기 및 그림 최고상을 선발해 총 26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참가자 전원은 한인 크리스천 정치인이 수여하는 상장을 받게 된다.

남가주 지역 뿐만 아니라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타 주 청소년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상장과 상금도 집으로 우송해 준다.

Kindergarten 부터 12학년까지 선착순으로 100명이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20. 시상식은 4월 26일(토) 오후 2시 로뎀장로교회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열린다.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https://www.hyosarangusa.org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로 온라인 참가 신청서에 접속할 수 있다.

문의: 714-670-9004, 714-833-2710
효사랑 선교회: www.hyosarangus.com



제11회 효사랑 선교회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

➔ 1면 기사 〈복음주의 단체, 카타르에....〉에 이어서 카타르에서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약 7%(개신교 2.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및 북남미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외신에 따르면 예배당 건립을 추진하는 ECAQ 역시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어 예배당 건립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CAQ는 자금 조달을 위해 WEA 등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배당 기공식에 WEA 창 부총무와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가 함께 참석한 것에서 WEA와 ECAQ가 한국교회에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미국 크리스천인터내셔널(CDI)은 보도했다.

주 목사는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기획위원이기도 하다.

예배당 기공식 소식을 전한 예장 합동 기관지에 따르면 ECAQ 로블레스 회장은 "이 예배공간에서 1만5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 또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제자훈련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교가 이슬람(대부분 수니파)인 카타르에서 정부에 등록된 곳에 속한 외국인이 예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도 없다.

카타르는 또한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국가를 나열한 오픈도어즈의 2025년 세계 박해 목록에서 41위를 차지했다.

카타르 정부가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등록된 교회에 예배 센터를 짓기 위한 토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오픈도어즈는 해외 기독교인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카타르의 종교 단지를 언급하며 "카타르 시민은 들어갈 수 없고, 이주 기독교인은 무슬림에게 기독교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했다.



카타르에서1월 24일 기독교 예배당 기공식이 열렸다. ⓒWEA

교회안의
남성사역
어렵지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 하세요.

The Lord is giving us the Answer!



"My Journey"의 저자 Patrick Morley 목사는 평생 남성사역을 연구해온사역자로서 그의 수많은 저서와 경험을 총정리하여 펴낸 책 My Journey를 통하여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남성 사역과 남성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My Journey의 한글판 "내 삶의 여정" 이병일 목사 번역



MIM Korea가 참석자에게 드리는 **특별선물** 고든 맥도날드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등록 선착순 30명 한정

남성사역 컨퍼런스
강사 이병일 목사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소: **L.A. 사랑의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Olympic과 Elden
참가비: 무료 / 샘플교재 및 점심제공
주최: Man in the Mirror Korea
대표 이병일 (Bryan Lee) 목사
(213) 435-6009 / bryanleemog@yahoo.com
주관: **기독일보** (213) 434-1170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만, 감사를 고백하면...”

‘은혜’ 작곡가 손경민 목사 더 은혜 워십팀 함께해


2월 23일(주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에서 ‘나눔온 희망온 자선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개최되었다. ⓒ기독일보

2월 23일(주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에서 ‘2025년 나눔온 희망온 자선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이 개최되었다.

충현선교교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공연이 시작된 가운데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고통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길 원한다”라며 이 콘서트의 의미를 전했다.

환영사에 이어, 이기명 색소폰 연주자가 ‘빈들에 마른 풀 같이’로 콘서트의 문을 열었고 이어서 더 은혜 워십팀(손경민 목사, 이기명 색소포니스트, 찬양사역자 주리, 찬양사역자 이윤화, 피아니스트 김정희)이 신곡 ‘은혜를 받은 자여’,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죄 많은 세상은’, 손경민 목사의 대표곡 ‘은혜’, ‘행복’, ‘감사’ 등을 불렀고, 찬양사역자 주리가 ‘천번을 불러도’를, 이윤화 선교사가 ‘이 땅은’을 불렀다.

손경민 목사는 “모든 순간 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불평, 원망, 두려움이 떠나간다. ‘감사’라는 찬양을 만들 때 제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 온 가족이 병원에 있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셨고, 그때야 말로 진실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또, “성도의 행복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 자체가 가장 놀라운 행복이다. 이 행복의 기준을 놓치지 않길 소망한다. 때로는 화려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눈물 나는 일도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기에 행복할 수 있다”라며 찬양곡 ‘행복’을 만든 계기를 나누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 만나는 사람들, 주어진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이윤화 선교사는 지진이 끊이지 않는 일본에서, 그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이 땅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미얀마,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난민 및 LA산불 피해자 등의 상황에 대한 영상을 상영한 후,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이 무대에 올라 이번 공연의 의미에 대해 나누었다.

“충현선교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정상우 목사님(충현선교교회 원로, 1대 담임)이 3대 이사장, 민종기 목사님(충현선교교회 원로, 2대 담임)이 부이사장으로 섬겨주셨는데 지금은 국윤권 목사님이 이사로 섬기고 계시다. 민종기 목사님이 미주복음방송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미주복음방송을 맡게 하셨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앞이 안보이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때, 남가주 지역 자선 단체와 어려운 이웃들, 전쟁 난민 등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 ‘나눔On’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24년까지 5년 간 95만 달러가 모금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현선교교회 연합성가대가 더 은혜 워십팀과 ‘주의 은혜라’를 함께 찬양했으며, 국윤권 목사가 축도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나눔온 희망온 자선콘서트’는 2월 14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남가주 6개의 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남가주 200여 교회, 선교 기관, 기업, 비지니스에서 후원했다.

이번 나눔온 콘서트로 모금된 금액은 LA 산불 피해자, 미얀마 카렌족, 가자 지구 및 서안 지구 어린이, 자선단체 및 다음세대를 살리는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2월 20일(목)부터 3월 10일(목)까지 지역 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 선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자선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최대 $5,000 나눔 활동비 및 물품을 지원한다. 신청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NANUM-ON@KGBC.COM)로 제출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미국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 준비

모든 신앙인은 말세라고 말하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런데 주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대만에서 목회하며 이스라엘 선교하는 최혁 목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감람산 찬양 집회를 준비한다. 최혁 선교사와 더불어 컨퍼런스와 찬양집회를 준비하는 이명이 목사는 한인 코디네이터로 미국 행사를 준비한다.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종말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폐해다. 자신의 신학과 신앙이 건강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에 근거했다고 강조하는 최혁 선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혁 선교사(가운데), 캐더린 유 선교사(빨간 자켓), 이명이 목사(흰 옷)

최 선교사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는 것을 꿈꾼다.

최 선교사는 4월 (21일~25일)에 남가주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태광 기자(월드 쉐어 USA)

컨퍼런스 문의: 이명이 목사(714 336 8995)

웹사이트 구축 교육 및 무료 웹호스팅 신청

교회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진행된다.

이 강의는 교회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전략을 배우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 웹사이트 구축 실습 ▶ 효과적인 콘텐츠 업로드 ▶ 검색 엔진 최적화 활용 ▶ 교회 웹사이트 유지와 보안 ▶ 디지털사역과연계 ▶ 교인과의 소통을 위한 이메일 뉴스레터 등 활용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강좌는 8주간 진행되며, 등록금은 $200이며 연장 교육이 가능하다.

이 강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직접 교회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돕는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시는 이들에 한해서 2025년도 홈페이지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민선 기자



웹사이트 구축 강의를 이끌 제임스 구 교수(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 센터 대표)

신청기간: 2월 부터 선착순

강의 장소: 7342 Orangethorpe Ave, B-115, Buena Park, CA 90621

[부고] 로뎀 장로교회 정필흠 원로 목사 별세

재미 고신 총회장을 역임하고 로뎀 장로교회 원로 목사로 섬긴 고 정필흠(태석) 목사가 지난 2월 16일 10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천국환송예배는 재미고신 총회, 재미 고신 서부노회, 로뎀 장로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지혜 선교교회 주관으로 3월 5일(수) 오전 10시 써니사이드 장의사에서 드리며,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12시 싸이프레스 포레스트 공원묘지에서 드린다.

예배 집례는 로뎀장로교회 담임, 재미 고신 서부노회장 박일룡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222-1110, 562-833-2070, 213-700-7575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써니사이드 장의사: 12301 Magnolia St, Garden Grove, CA 92841



비가 많이 내린 새벽 두시, 교회의 기억 · · · 교회란 무엇인가

UMC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며 교단 탈퇴한 주님처치 최현규 목사



주님교회 최현규 목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내 것처럼 여겼지만, 이 과정을 겪다 보니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며, 교회 이름을 '주님교회'로 지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TV기독일보

40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떠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ecclesia) 즉, '세상 가운데서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UMC교단 총회에서의 결정, 즉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허용 및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허용한 교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을 굽히는 대신,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건물 대신 '신앙'을 지킨 주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의 사례는 진지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묵상의 질문을 던져주며, 교단과의 신학 및 신앙적 불일치로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지난 1월 말, 주님교회 최현규 목사가 TV기독일보 '늘 새롭게'에 출연해 교단을 탈퇴하게 된 과정, 교회 건물을 두고 마땅한 예배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얼마 전까지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섬겼다. 연합감리교회는 감독의 파송제로, 저희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지정하는 교회로 간다. 2022년 7월부로 남가주 주님의교회로 파송되어 사역했다. 그때 연합 감리교회 이슈 중 하나가 동성애 목사 안수를 합법화시키는 이슈가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 총회를 통해 대략 95.6%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동성애 목사 안수가 허용되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2024년 5월 말, 교단에서 제일 큰 총회를 통해 그것이 통과되었다. 반대하는 교회에는 제재가 들어갔고, UMC는 저를 5월 말에 다른 미국 교회로 파송하기로 했고, 열흘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과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교인들은 흩어질 것이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답은 한 가지였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하고 성도를 하나님 묶어야 한다.'"

교단을 탈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6월 15일 성도들 앞에서 UMC 탈퇴 결단을 선언했다. 탈퇴 선언 후 예배드리기 위해 30군데를 알아보았지만, 한 곳에서도 '예스'라는 답을 얻지 못했다. 6월 23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한 주님교회는, 93도~96도 되는 더운 날씨에 야외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주일을 3일 앞둔 목요일, 라하브라에 위치한 SONORA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온 성도가 울었다. 그렇게 온 성도가 나와서 첫 예배를 작년 6월 23일에 드리고 지금까지 주님교회는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다.

최현규 목사의 결단은, 그의 마음에 아로새겨진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아버지도 목회자셨는데 목회가 쉽지 않음을 목도하고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 아버지가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새벽 2시에 교회에 가서 물을 퍼야 한다며 저와 가족들을 깨우셨다. 비를 뚫고 교회에 갔는데 이미 성도들이 열심히 물을 푸고 계신 모습이 어린 제게도 감동이 됐다. 목회에 대해, 어렵고 힘든 것만 기억했는데, '아니구나, 저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다."

그는, 이전 보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모임을 갖기 쉽지 않음에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커피브레이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제1기 뜨레스디아스(Tres Dias)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성경필사에도 150명이 참여하는 등 영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내 것'처럼 여겼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최 목사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처치'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교회홈페이지 : www.joonim.org
주일 예배 : 401 S Palm St, La

광신대 총장 김경윤 목사, 한마음제자교회서 설교

광신대학교 총장 김경윤 목사가 지난 23일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곽부환 목사)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교했다.

김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삼아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이 하나이며,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다. 그는 한 성도의 간증을 소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다"며,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윤 목사(광신대 총장)가 2월 23일(주일) 한마음 제자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교했다. . ⓒ기독일보

이어 "각자가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교를 통해 한마음제자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부환 목사는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결단이 되었다"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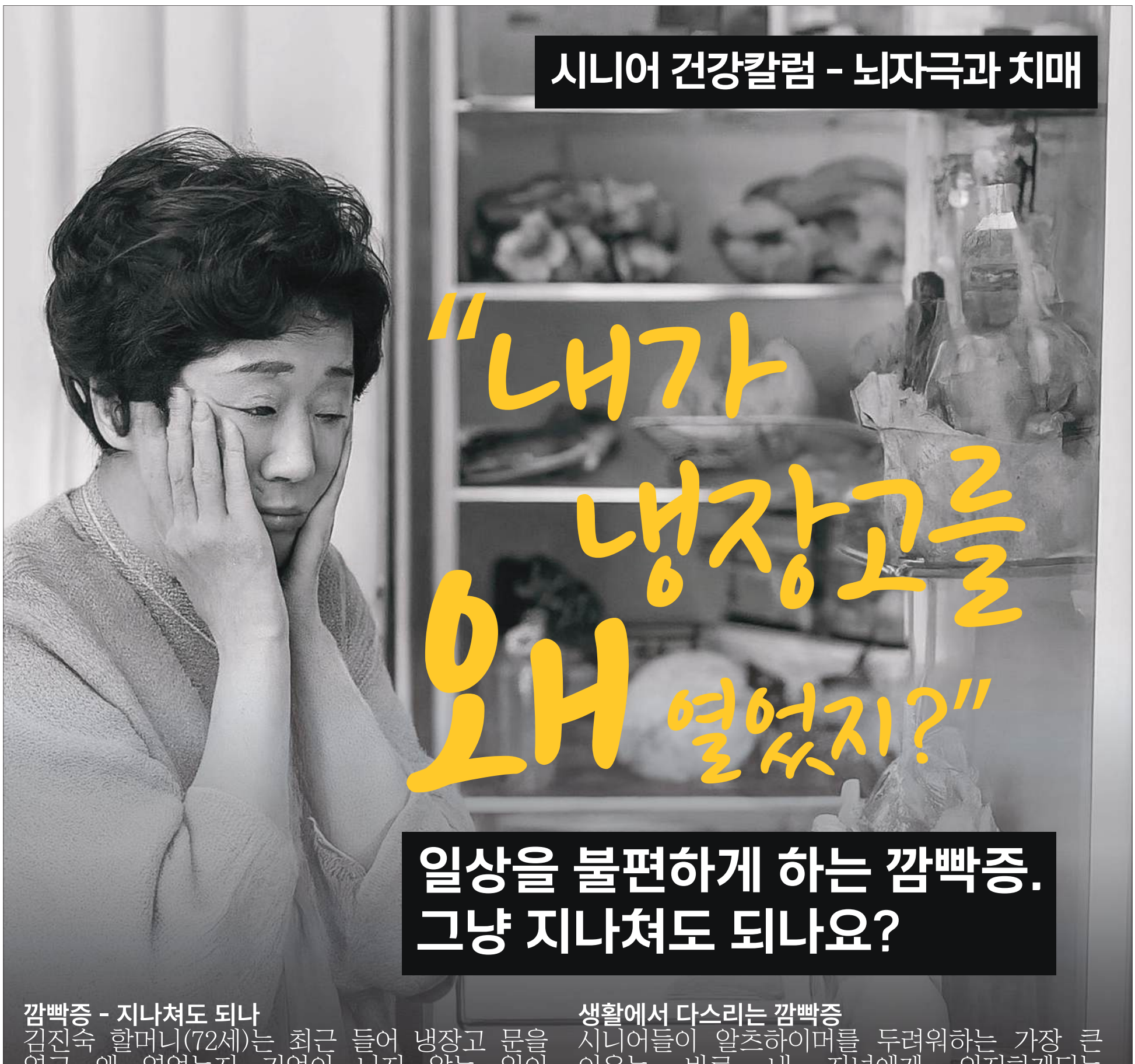
조셉 리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시니어 건강칼럼 - 뇌자극과 치매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지?"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깜빡증. 그냥 지나쳐도 되나요?

깜빡증 - 지나쳐도 되나

김진숙 할머니(72세)는 최근 들어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 물건을 두고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깜빡증. 이렇게 내버려도 되는것일까요?

많은 시니어들은 일상에서 깜빡증을 겪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뭘 찾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날때도 있고, 잘 쓰던 단어도 갑자기 말할때 잊어버려 한참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자가진단

다음 항목 4개 이상 해당되면 알츠하이머를 의심해 봐야합니다.

- ☐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린다.
- ☐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 중 말을 멈추는 일이 많다.
- ☐ 냉장고를 열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약속을 깜빡하거나 중요한 날짜를 잊는 일이 늘었다.
- ☐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한다.
- ☐ 계산을 하거나 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 ☐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헷갈린 적이 있다.
- ☐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 ☐ 가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 ☐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졌다.

생활에서 다스리는 깜빡증

시니어들이 알츠하이머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자녀에게 의지하게되는 미래입니다. 그러한 일을 막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등을 섭취하고, 걷거나 수영같은 유산소 운동을 자주하여 뇌 혈류를 촉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뇌를 자극 할 수 있는독서, 퍼즐 풀이,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등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깜빡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보아야 하며, 약물 치료를 시도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뇌자극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 뇌자극

뇌는 꾸준한 자극을 통해 기능을 유지합니다. 노화로 인해 신경세포가 점점 약해지면서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적절한 뇌자극이 이루어지면 신경 회복이 가능하고 기억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증상이 심해지고, 약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에서 다스리는 깜빡증

시니어들이 알츠하이머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자녀에게 의지하게되는 미래입니다. 그러한 일을 막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등을 섭취하고, 걷거나 수영같은 유산소 운동을 자주하여 뇌 혈류를 촉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뇌를 자극 할 수 있는독서, 퍼즐 풀이,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등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깜빡증상은 우울증이라는 후유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깜빡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칼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미국과 국제사회가 방관해선 안 된다”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는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법학 교수. ⓒRSBN 영상 캡처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법학 교수가 2025년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와 이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속 절벽 끝에 서다

탄 전 대사는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바쳤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폭정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기에 판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및 범죄 혐의 지적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제재를 위반하고 수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이 먼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시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 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이를 앞두고 정치적 제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이재명은 여러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그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는 한국의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트럼프’라 불리며 한국 내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해왔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기에 판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국제사회,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지켜야

탄 전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이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탈당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5만 명의 미국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그가 정당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CPAC는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정치 행사이며, 2025 CPAC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됐다.

홍은혜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속 빈곤, 아동 가장 큰 피해자”

세이브더칠드런 “국민 75% 생계 유지 어려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가면서 국민의 75%가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보호소 생활을 하는 등 가족 해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딸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지만, 치료를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다. 재활과 물리치료가 필수적인데, 공과금과 집세를 낼 돈도 부족하다. 전쟁 중에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올레나(31, 가명)는 지난 3년간 전쟁을 피해 여섯 번이나 거처를 옮겼다. 그녀처럼 수많은 전쟁 피난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 4명 중 3명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2025년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수요 및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75%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고, 식량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제한적이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현재 약 50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 중 60%가 여성과 아동이다.

월 평균 임금은 2022년 7,000흐리우냐(약 25만 원)에서 2025년 2월 현재 5,000흐리우냐(약 19만 원)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양배추, 당근, 감자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북부의 분쟁 피해 지역에서 870명 이상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며, 46%는 공과금 납부를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의 가정이 비누, 샴푸, 수건과 같은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가 넘는 여성이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장기화로 많은 가정이 영양가 있는 음식, 의류,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생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빈곤이 심화하며 일부 부모는 겨울 동안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생계를 위해 위험 지역에 남고 아이들만 친척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인구 중 2%에 해당하는 7만 9천여 명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1천 8백 개 집단 보호소에 거주하며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전쟁 전 도네츠크에 거주하던 라이사(61, 가명)씨는 전쟁 후 실향민이 되어 손녀 야나와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내몰렸다. 매달 연금으로 받는 3,000흐리우냐(약 10만 원)로는 생활이 어렵다. 이곳(집단보호소)에 왔을 때 담요도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없어 14가구가 냉장고 한 대를 함께 써야 했다. 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우크라이나 사무소장 소니아 쿠쉬는 “불확실한 전쟁 속에서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3년간의 전쟁은 아이들 삶을 산산조각냈다. 많은 아동이 빈곤에 빠져 끼니를 걱정하고, 폭격으로 파손된 집에 살고 있다. 가족 해체와 아동 보호시설 수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년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긴급 대응을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380만 명 이상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했다. 6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을 통해 가정의 식량 구입,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집 수리를 돕고 있다. 또 겨울철에 대비한 월동용품, 위생용품, 식수 지원을 통해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재난 속 아동을 돕기 위해 ‘세이브원(Save One)’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후원금은 긴급구호 아동기금으로 사용되며, 후원자에게는 인도적 지원 전문가와 연결된 모습을 상징하는 팔찌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www.sc.or.kr) 내 세이브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교회,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참여 확대"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여교역자 인식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3차 목회데이터포럼

목회자 10명 중 8명이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에서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을 주제로 하는 목회데이터포럼을 열고, 정재영 교수(실천신대)가 목회자의 여교역자 인식과 여교역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목회데이터

'남성 목회자 · 성도의 의식 전환'
교회 내 양성평등 위한 최우선 과제
여전도사 절반, '목회자 된 것 후회 경험'

연구소(대표 지용근)가 기독교 조사 전문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목회자 584명(담임목사 250명, 부목사 250명, 여전도사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목회자 10명 중 8명,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 존재' 동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진술에 대해 전체 목회자의 79.8%가 동의했다. 또한, '남성 담임목사는 여성 부목사를 선호하지 않는다'(57.0%), '교인들은 여성 부목사를 선호하지 않는다'(48.1%)는 항목에서도 상당수 목회자들이 동의하며 여성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특히 여성 목회자의 69.8%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도사 때보다 사역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응답했다.

◆ 여성 목회자 10명 중 7명, '교회에서 역할 구분 존재'

교회 내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에 대해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이 맡고 있다'(61.6%),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61.5%)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 목회자의 72.8%가 '교회에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응답해 남성 목회자(57.7%)보다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 공예배 설교, '남녀 구분 없이 해야 한다' 76.6% vs 91.4%

사역의 종류와 성별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녀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항목별 차이가 있었으며, '공예배 설교'의 경우 남성 목회자 76.6%, 여성 목회자 91.4%가 '남녀 구분 없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애경사 집례'에서도 남성 68.6%, 여성 82.0%가 동의했다.

◆ '남성 목회자 · 성도의 의식 전환', 교회 내 양성평등 위한 최우선 과제

교회 내 양성평등을 위한 필요 요소로 '남성 목사들의 의식 전환'(59.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남성 성도들의 의식 전환'(34.0%), '여성 목사 안수 허용'(31.6%)이 중요 과제로 꼽혔다.

◆ 여전도사 절반, '목회자가 된 것 후회한 경험 있어'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목회자의 34.9%가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38.5%)이 남성(33.7%)보다 더 높았으며, 직분별로는 담임목사(24.4%)보다 부목사(40.4%)와 여성 전도사(50.0%)가 더 높은 후회 경험을 나타냈다.

◆ 여성 부교역자의 생활 만족도, 남성보다 낮아

부교역자의 현재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만족률은 46.4%, 불만족률은 23.1%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의 만족률이 41.8%로 남성(49.1%)보다 낮았다.

정재영 교수는 이에 대해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차이와 직분별 차이가 존재한다"며 "특히 교회 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직분별 차이가 컸으며, 여성 전도사들의 차별 인식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여성 교역자들의 현실에 대해 교계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사역 수행 적합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특정 성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며 "이 차이를 적합성 혹은 적성의 문제로 볼 것인지, 차별로 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회 내 양성평등 개선을 위해 남성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은정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동등한 사역자 및 동역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며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여성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한 리더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목회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안수 준비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시스템 구축, 육아휴직 및 대체 사역자 지원 시스템 마련, 이중직 현실 인정 및 지원 정책 수립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은 질의응답 순서로 모두 마쳤다.

장요한 기자

콩고 교회서 기독교인 70명 참수된 채 발견

콩고민주공화국(DRC) 북키부주의 한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인 70명이 참수된 채 발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단체인 오픈도어는 최근 "콩고의 기독교인들이 70명의 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폭력 행위로 인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박해가 심화되는 상황에 처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4시경(현지시각)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반군인 민주군사동맹(ADF) 소속 무장세력은 루베로 지역 메이바 마을을 포위하고 기독교인 70명을 체포했다. 납치된 주민들은 카산가의 한 교회로 끌려갔고, 모두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현지 교회 지도자는 "유가족들은 지속적인 안전 위협으로 즉시 시신을 매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학살을 겪었다"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전을 위해 이 지역을 떠났다.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이번 공격을 '잔인한 종교적 대학살'이라고 칭하며 "70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이 최근 학살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년간 6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끊임없는 전쟁과 암울한 폭력의 일부"라고 우려했다.

콩고에서는 투치족 반군 M23이 동부 도시인 고마를 점령한 이후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분쟁이 이어지면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M23은 동쪽 이웃인 르완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르완다는 콩고의 동부 광물 매장 지역을 합병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는 콩고가 반정부 민병대를 지원하고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는 도망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ICC의 제프 킹(Jeff King) 회장은 "이제 기도 그 이상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는 이 실패한 국가에 개입해 질서를 회복하고 끝없는 유혈 사태로 인한 희생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군대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ADF 무장 세력은 콩고 북동부에서 공격을 강화해 왔다. 2014년 북키부주 베니 지역을 시작으로 이투리와 이루무, 맘바사, 루베로 지역으로 공격을 확산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올해 6계단 상승한 35위를 기록했다. 신앙을 이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 261명에서 355명으로 증가했으며, 수천 명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피해 집을 떠났다.

김진영 기자



트럼프, 체외수정 확대 행정명령… 친생명 단체 "부적절한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체외수정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친생명 단체와 가톨릭 주교들은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체외수정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체외수정 치료를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안정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내무부 정책 보좌관에게 "체외수정 접근성 보호와 치료의 자기부담금 및 건강보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권고안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외수정술(IVF)을 "생식력 문제를 겪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희망의 원천"이라며 "미국인들은 체외수정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과 더 저렴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 주기당 비용은 1만2천달러에서 2만5천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발행한 팩트시트는 "고용주 가운데 4분의 1만이 직원에 대한 체외수정술 보장을 보고하고 있으며 몇몇 주만이 주에서 규제하는 보험 플랜에서 체외수정술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친생명 활동가 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이같은 관행이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보실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체외수정술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윤리적 대안을 요구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친생명 활동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 E. 토마스 주교와 평신도·결혼·가족 생활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E. 배런 주교는 성명을 통해 "목사로서 우리는 불임을 겪는 수많은 부부의 고통을 보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그들의 깊은 소망이 존경할 만한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체외수정술에 대한 행정부의 추진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상에 소중한 새 생명을 낳으려는 부부를 위해,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불임의 근본 원인을 윤리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복적 생식 의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생명의 파괴를 확대하거나 타인이 비용을 보조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정책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윤리 및 공공정책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체외수정술은 발달 초기 단계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생성하고, 선별하고, 이식하고, 보관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친생명 단체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창립자인 릴라 로즈는 CP에 행정 명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자세히 밝혔다. 로즈 대표는 "체외수정술의 엄청난 비용은 인간의 생명이다. 체외수정술을 통해 태어난 90%가 넘는 작은 소년 소녀들이 동결되거나,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생명 존중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수정에서 시작되지만, 체외수정술은 인간을 일회용으로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로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미국인이 가족을 갖고 더 많은 아기를 갖도록 돕는 목표는 좋은 것이지만, 체외수정술 확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성과 권리를 거부하는 대가로 아이를 가질 권리가 없다. 자비로운 사회는 가족을 지원하는 동시에 태어난 모든 인간과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보호를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은 어머니와 아이를 모두 보호하는 윤리적이고 생명을 긍정하는 생식 옵션을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낙태시술소 인근서 기도한 친생명 운동가 체포돼



▲낙태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bpas 건물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한 친생명운동가(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크리스천 컨선 제공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한 친생명운동가가 낙태시술소 완충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경찰은 "19일(이하 현지시각) 한 74세 여성이 완충구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낙태 반대 활동에 대한 스코트랜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글래스고의 낙태시설 밖에서 밤샘 기도회를 이어 온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체포된 사건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낙태시술소 완충 구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

밴드 부통령은 뮌헨에서 열린 유럽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에든버러의 제한 사항을 강조하면 "지난 10월, 불과 몇 달 전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소위 안전 접근 구역에 집이 있는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자들에게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사상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시민을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존 스위니(JOHN SWINNEY)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밴스의 발언은 완전히 틀렸다"며 "주민들의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에든버러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완충구역과 구역 경계 사이의 사유지(주택 등)에서 행하는 활동도 구역 내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변호인이자 전도사인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밴스의 발언을 지지하며 "완충구역 안에 서서 비밀리에 기도하면 체포돼 기소될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는 "가정에 보낸 편지에 나와 있듯이, 완충구역 내의 개인 주택에는 해당 구역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개인 기도가 완충구역에서 금지된다면 (완충구역 내) 개인 주택에서도 금지돼야 한다. 물론 커튼이 닫혀 있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체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낙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다면 법을 어긴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 경찰은 그러한 행동이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 줬다"고 했다.

이어 "스코틀랜드에 대한 밴스의 발언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옳았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민주당, 교회와 학교에 이민국 급습 막는 법안 제출



JOHN TOWNER. ⓒ unsplash.com/ JOHN TOWNER

의회 내 민주당 의원과 여러 권익 옹호 단체는 교회 및 학교에서의 이민법 집행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의원 헤수스 가르시아(Jesús García), 뉴욕주 의원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Adriano Espaillat), 코네티컷주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이 민감한 장소 보호 법안(Protecting Sensitive Locations Act.)을 재도입했다.

2023년에 도입된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의 표적 체포,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가하는 개인"과 같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에서 1,000피트 이내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한다. "민감한 장소"로 분류된 기관에는 의료 시설, 사립 및 공립 학교 캠퍼스, 학교 버스 정류장,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 및 종교 서비스를 목적으로 임대된 건물과 같은 기타 예배 장소"가 포함된다. 가르시아는 이 법이 "ICE의 강제 집행 위협 없이 이민자 가족들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어느 누구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치료를 받거나, 신앙을 실천하는 동안 구금될까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제 선거구와 전국적으로 두려움과 위협 수준을 더욱 높였다"고 썼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은 없었다. 이 법안은 다양한 교파, 특수이익단체, 종교를 대표하는 수백 개의 종교 및 세속적 옹호 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580명의 지지자 명단에 오른 기독교 단체로는 연합감리교회, 미국친구봉사위원회, 협동침례교협의회, 프란치스코행동네트워크, 한인미국성소교회네트워크, 미국기독교연합, 침례교연합이 있다. 지난달, 미국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에 처음 제정된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DHS는 "범죄자들은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인도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남용하여 150만 명의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도록 무차별적으로 허용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행정부 첫날에 중단되었다. 이 조치는 인도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사례별로 이주민을 살펴보는 원래 목적으로 되돌릴 것이다." 지난주, 약 20개의 종교 단체와 교파가 DHS, CBP, ICE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예배, 사역 또는 기타 회중 활동 중에 이민법 집행 조치를 취하면 그들의 종교적 실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디 한 기자

美 주립대 캠퍼스 부흥집회에서 2천여 명 결단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열린 부흥집회.ⓒ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열린 대규모 캠퍼스 부흥행사에서 오하이오 주립대(OSU) 학생 2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주최측이 밝혔다.

'더 쇼트'(The Schott)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6천5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쌀쌀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현장에 주차된 트럭 뒷부분에서 세례를 받았다.

'유나이트 US'(Unite US) 창립자 토냐 프레웨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학 캠퍼스에서 전개되는 영적 운동에 경외감을 표현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신 방식에 경외감을 느꼈고, 오늘 밤도 이곳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셨다"면서 "6천5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더 쇼트'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의 2천명이 응답했다. 그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자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프리웨트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제 막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덧붙였다. 맷 브라운 목사는 X에 "이런 캠퍼스 행사 중 다수에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어젯밤 기온이 추웠지만 학생들이 유-하울(U-Haul) 트럭 뒷좌석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유나이티드 US'(Unite US) 운동의 홍보 활동은 2023년 9월 시작됐다. 그 이후로 다양한 캠퍼스에 걸쳐 7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역의 행사에 참여하여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했다.

이번 집회는 유나이티드 US 운동이 올해 조직한 두번째 대규모 행사로 켄터키 대학에서 열린 비슷한 모임에 이은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지난 2024년 8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부흥회에는 대학 풋볼 팀원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약 60명의 참석자가 세례를 받았고, 리시버 에메카 에그부카, 러닝백 트레비온 헨더슨, 수비 엔드 J.T. 투이몰로, 전 와이드 리시버 카므린 배브와 같은 유명 선수들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한 교직원은 CP에 "자발적인 세례를 시작했고, 풋볼 선수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왔다.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달랐고,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IS에 참수된 이집트 기독교인 다룬 영화 'The 21'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 'The 21' 한 장면. ⓒC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지난 2015년 리비아 해변에서 이슬람 국가(IS)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순교한 21명의 기독교인 남성의 신앙과 희생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됐다.

미국 기독교 매체 CBN뉴스에 따르면, 영화 'The 21'은 2015년 2월 15일 리비아에서 일하던 중 IS에 납치됐다가 순교한 이집트 출신 20명과 가나 출신 1명의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리비아에 건너왔던 그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후 손이 묶인 채 해변으로 끌려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순교했다. 영화의 제작을 맡은 '모어 프로덕션'(More Productions)의 마크 로저스(Mark Rodgers)는 6년 전 이집트를 여행하던 중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21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로저스는 "이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6년이 걸렸고, 20개국 이상 70명 이상의 애니메이터가 참여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채 참수당한 21명의 남성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영화 제작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한 노력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순교자의 용기와 신앙을 보여 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길 바란다"고 했다.

'The 21'은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영화 제작의 총괄을 맡은 맨디 하트(Mandi Hart) PD는 "우리는 항상 오스카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후보에 오를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인기 TV 프로그램 '선택받은 자'(The Chosen)에서 예수 역을 맡은 배우 조나단 루미(Jonathan Roumie)도 이번 영화의 총괄 PD로 참여했다. 그는 "21명의 순교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증거가 됐다"며 "서구에서는 순교가 흔하지 않지만, 중동과 동방 지역에서는 신앙 때문에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화 'The 21'은 공식 웹사이트(www.the21film.com)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강혜진 기자

'위키드'로 이름 알린 흑인 여배우 '예수'역 캐스팅에 논란

할리우드 배우 신시아 에리보(38)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맡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에리보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볼에서 공연될 예정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할로 출연한다. 이는 1971년 초연된 이후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예수를 연기하는 사례가 된다. 할리우드 볼 측은 "에미상, 그래미상, 토니상 수상자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세 번 지명된 신시아 에리보가 예수 역으로 캐스팅됐다"며 "팀 라이스의 가사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 특징인 이 상징적인 뮤지컬이 올여름 다시 무대에 오른다"고 발표했다. 에리보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여름은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 같다. 너무 기대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신시아 에리보 ⓒwiki

◈캐스팅 발표 후 온라인 논란 확산

그러나 이 같은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는 여성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신성모독적인 캐스팅"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호주의 정치인 랄프 바베트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X(구 트위터)에 "다른 종교에도 이런 캐스팅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기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번 캐스팅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일부 팬들은 "예술적 해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1971년 초연 이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해왔다"며 에리보의 캐스팅을 지지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이번 논란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캐스팅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에리보는 이미 여러 작품에서 실력을 입증한 배우로, 그녀가 이 역할을 소화할 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팬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다양한 캐스팅 전통 이어왔다고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1971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상연된 이후 유다의 시선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형 일주일 전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다양한 인종과 성별의 배우들이 캐스팅되며 시대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왔다. 실제로 2018년 NBC가 부활절 특집으로 방영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이브 인 콘서트'에서는 흑인 아티스트 존 레전드가 예수 역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과거 동성애자로 알려진 아티스트 데클런 베넷도 예수를 연기한 사례가 있다.

◈신시아 에리보,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은 배우

영국 왕립연극학교 출신인 에리보는 2015년부터 2년간 브로드웨이 뮤지컬 '컬러 퍼플'에서 셀리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이 역할로 2016년 토니상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홍은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12: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언약교회, 호성기 목사 초청 부흥회

3월 7~9일(금~주일)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

포모나 언약교회(담임 장수영 목사)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춘계 부흥회를 연다.

7일(금) 저녁 7시, 8일(토) 오전 6시와 오후 5시, 9일(주일) 오전 11시에 집회가 열린다.

호성기 목사는 필라안디옥교회를 설립, 30년 간 목회했으며, KPCA 해외한인장로회 제38대 총회장을 역임했다.

언약교회는 2023년 12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2024년 1월 독립교회로 출발했으며, 지난 5월 19일에 설립예배 및 장수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민선 기자

문의: 909-622-8815
주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부에나팍 교회 봄학기 미술반 오픈

봄학기를 맞아 부에나팍교회(김성남 목사)에서 그림반을 오픈한다. 그림에 관심이 있으나 시작이 어려우신 분, 시니어, 초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월 4일(화)부터 아크릴, 유화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 달 수강료는 80불.

문의: 213-999-3631(강사 크리스 문)
주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Pixabay.com

LA시, 공원의 미래에 대해 주민 의견 듣는다

LA 공원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A는 미국 대도시 공원 시스템 순위에서 100개 도시 가운데 88위로 추락했다.

전국 "공원 점수"를 집계한 공공토지신탁(Trust for Public Lands)에 따르면, 이는 예산 부족 및 공원 접근성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LA 주민 10명 중 4명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없다. 또한 기존 공원의 유지보수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20억 달러에 달한다.

공공토지신탁의 길레르모 로드리게스 주 책임자는 "LA 시민들이 지역 공원이나 수영장을 방문하거나 농구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시설의 대부분이 무질서한 상태"라고 전했다.

로드리게스는 공원을 개선하고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을 지지하는 공원 옹호 연합의 일원이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예산을 시립 공원에 제공해온 토지세가 내년에 만료된다는 점이다. 이에 LA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공원 수요 평가' (park needs assessment)를 통해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공원 시스템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도시 설계 회사 OLIN의 계획 담당자 겸 조경 건축가인 제시카 헨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LA 시민들이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시는 다음 달부터 공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규모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 당국은 다양한 지역의 공원, 노인 센터, 학교 등에서 다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와 워크숍,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헨슨 담당자는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엽서, 전단지, 틱톡 영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헨슨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 공원을 검색하고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시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의 대릴 포드(Darryl Ford) 기획건설 감독관은 현재 공원 시스템의 문제가 수십 년 전에 내려진 결정의 결과라며,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향후 수십 년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공원 수요조사를 연구하는 한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UCLA의 존 크리스텐센 교수는 "가장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원 기금을 집중해 LA 시민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겠다"며 "그 결과 시 전체의 공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망했다.

기사제공: 에스닉미디어서비스

단신

▶ 나성순복음 51주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는 2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 동양선교교회 아르모니아 싱어즈 초청 찬양 콘서트

3월 8일(토)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본당에서 클래식 성악가와 챔버 앙상블로 구성된 '아르모니아 싱어즈' 초청 연주회가 열린다.

▶ 보나뮤직 한국 동요대회

보나뮤직(BONA Music, 대표 이혜자)이 3월 8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에서 '2025 보나뮤직 동요대회 위너 콘서트'를 개최한다.

▶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

주님세운교회가 3월 16일(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박성규 원로 목사 추대 및 신용환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한다.

교회 주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선교사 자녀 위한 미술공모전

선교사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미술 공모전이 2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린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선교사의 자녀이다. 출품분야는 회화,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등이다.

공모의 주제는 '소망의 빛을 담다'이며,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된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3월 25일이다.

문의: gaonartgallery@gmail.com
작품 제출: 618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참가신청: https://forms.gle/RJEAwLo8EN3TEnAVA

▶ 감사한인교회 창립 42주년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3월 14일-15일(금-토) 교회 본당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진유철 목사.

14일(금) 저녁 7:30
15일(토) 오전 6시, 저녁 7:30

사순절 특별 칼럼

사순절의 영적 전통을 회복하자!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USA 대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초대교회 유산이 많다. 그중의 하나가 사순절 영적 축복이다. 고대교회가 시작한 사순절은 한동안 건전한 형태로 발전했다. 성도들의 영성 훈련과 교회 대각성을 이끄는 거룩한 절기였다. 교회와 성도는 사순절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함으로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 기간으로 삼았다. 특히 부활절에 행하는 세례식을 대비한 세례자 교육 기간이었고 변화와 성숙의 기긴이었다.

그러나 중세에 사순절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사순절이 교권을 강화 수단이 되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규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10세기 이후 로마교회는 사순절을 금식 기간으로 정하고, 구원을 위한 금욕과 고행의 계절로 변형시켰다. 이즈음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율로 본래 사순절 정신을 잃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 권위자 테일러 마샬 (Taylor Marshall)은 "중세의 사순절은 이슬람의 라마단보다 더 혹독했다(Medival Lent was harder than Islamic Ramadan)."고 전한다. 그는 사순절의 기간도 40일로 라마단(30일)보다 길었고, 금욕의 내용도 라마단보다 훨씬 복잡하고 가혹했다고 밝힌다.

사순절 금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가혹하고 엄격하게 발전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정한 '피가 섞인 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말라'는 규정이다.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후 달걀과 치즈가 또 금지되었고, 점점 규정이 까다롭게 되었다.

게오르크 스텐겔은 사순절에 달걀을 금한 것에 얽힌 얘기를 전한다. 사순절에 달걀을 금했기에 사순절이 끝나면 달걀이 처치 곤란이었고 달걀 처리를 위해 수도원이나 교회에 달걀로 소작료를 내거나 기부했고 이 달걀로 교회는 부활절에 채색 달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활절 달걀의 시초라고 주장한다.

중세교회가 사순절에 육식은 금하고 생선을 허락하자 수도사들이 이 규칙을 변칙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물고기를 허용하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많은 일화가 등장했다. 독일 바이에른에 한 수도원에서 사순절 기간에 오리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오리가 물에 살기 때문에 어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참신한(?) 해석으로 사순절 오리고기 취식은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수도원에서는 더 능청스러운 해석으로 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어류와 조류가 같은 종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0절을 인용하면서 같은 날 창조된 물고기와 새들은 같은 종족이라며 사순절에 새 고기를 먹었다. 또 어떤 수도원에서는 고기를 물에 담근 후 물고기라 주장하며 먹었다.

더 심각한 것은 타락한 사순절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1522년 사순절에 취리히 인쇄업자 프로샤우어의 집에서 인쇄 노동자들이 성경출판 기념 파티를 하면서 소시지를 먹었다. 프로샤우어는 "금식 기간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고생한 노동자를 섬기는 맘으로 소시지를 식탁에 올렸다. 로마교회는 이것을 문제 삼아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츠빙글리는 1522년 3월 23일 주일설교에 사순절 금식 규정은 교회가 정한 인간의 규범일 뿐이며 성경의 교훈은 가르침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순절에 육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츠빙글리의 이 설교는 이후에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문을 출판했고, 이 설교가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츠빙글리 종교개혁은 사순절의 비판으로 출발했다. 그는 로마교회가 법과 규정을 남발하여 가련한 성도들의 양심을 옥죄는 죄를 범한다고 비판했다. 칼빈은 천주교의 악습을 비판한 츠빙글리 의견을 따르며 사순절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복음주의 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회가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대교회는 사순절을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로 삼았다. 사순절은 십자가와 고난에 담긴 주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금식과 기도로 영성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정태회 칼럼

성취와 포기



정 태 회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몇 해 전 MK 스포츠뉴스는 〈한국, 12년 만에 16강 진출... 도하 기적은 어떻게 완성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H조 2위로 도하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 후불은 없다. 지금 나를 자제하고 훈련하며 꿈을 향해 달린다." 한국축구팀과 손흥민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태극전사들에게는 개인의 삶이 없었다. 오직 훈련이 모든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하나를 성취하려면 다른 중요한 어떤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전문인이 되는 원리도 동일하다. 집중의 원리를 따라 매일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모든 것에서 잘하려는 야심(?)을 버려야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진다. 존 멕스웰은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Everything worthwhile is uphill!--가치 있는 모든 것은 산정상에 있다." 정상에 오르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메고 가는 짐이 가벼워야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두 개를 모두 추구하고자 하는 "복합 유연성"이 한국인의 보편적 심성이라고 말한다. 허교수에 의하면 "짬짜면"이야말로 한국인의 복합 유연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짜장면과 짬뽕 중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심리. 그러나 그는 짬짜면처럼 안타까운 식습관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입에 넣고 환상적 맛의 믹스를 즐기지 않는 한 짬짜면은 짜장면도, 짬뽕도 어느 것 하나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오늘 짜장면을 한 껏 즐기고, 내일 짬뽕을 한 껏 즐길 것을 그는 권한다. 이것이 인생을 질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성취를 위한 리더십도 동일하다. 우리가 한국인 고유의 복합 유연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탁월한 성취를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소중한 어떤 것을 포기하여야 또 다른 소중한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다. 내어 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셨다.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리더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취를 원한다면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어 놓고 추구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한다.

알피니스트 짐 휘테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산을 정복하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산가 자신을 정복할 뿐이다." 리더는 타인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다. 리더가 리드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언제나 리더 자신이다.

하늘바라기

감사만이 -김은주



가슴 시려도 기도하게 만드니 감사
못난 마음이 더 어그러져도 깨쳐서 새것 만드니 감사
만질 수 없어도 영혼이 만나니 감사
당장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게 만드니 감사
좁다란 생각으로 망쳐도 부서져서 넓은 마음 만드니 감사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만 바라니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를 하게 만드니 감사
감사만이 영혼이 깨어 주님과 하나 된다네

김은주 시인은 2012년 한국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목회학(M.Div)을 전공하였고, 2022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4년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진유철 칼럼

명확한 믿음의 목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올바른 신앙을 위한 교훈을 전하면서 명확한 믿음의 목표 3가지를 말씀합니다. (딤전1: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첫째 청결한 마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에 초점을 둔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인생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중 5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5:8)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삶은 지름길을 가듯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는 삶의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세수 대야를 가져와서 손을 씻는다고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로 청결해집니다. 세상의 타이틀을 부러워하고 유명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므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영이 죽었을지라도 양심이 남아있습니다. 계기판과 같은 양심은 오차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자꾸 세뇌되면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문제도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무뎌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에는 '선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등 수식어가 붙습니다. 선한 양심의 "선함"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마디로 선한 양심을 갖기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에 무너뜨리는 거짓이 침투합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외식의 거짓된 믿음이 침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세리나 창기와 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가면과 외식, 위선과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느끼는 정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거짓이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종교행위로 신앙이 익숙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명확한 믿음의 목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 예수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센트럴신학대학원 신학단상

하나님의 프러포즈



김 성 정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예배학과

신실한 크리스천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인사 조직 전략 교수인 윤정구 박사의 저서 『황금 수도꼭지』에 보면 이런 유럽 만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바이킹이 신기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황금 빛 수도꼭지!' 너무나 매혹적인 그 수도꼭지에 반한 바이킹은 그것을 훔쳐 곱게 포장한 후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할 때 바이킹은 기대하라는 듯 그 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틀고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박사는 이 만화가 근원에 대한 고려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조작해 값진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결과를 원한다면 물이 솟아나는 근원인 관정을 찾아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역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존재 이유인 '목적'이라는 관정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한다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가정과 이웃,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438장)"의 작사가 찰스 F. 버틀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온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안으로 침투해 오니, 내면과 외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 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벧전2:9-10; 고후5:17)이 부어지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길잡이 별'이 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가르쳐 줍니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1:3; 골1:16),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사43:7)을 믿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고전10:31)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 감사,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 좌절, 실패, 수치, 아픔 등의 모든 상황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음(고전10:31)을 믿으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소망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삶은 두 가지의 예배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이고, 두번째는 개인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성경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두 예배는 사실 하나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사1:10-17; 호6:6-7; 마9:13, 12:7).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약2:17-18).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의 요소들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을 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충만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가정, 일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좌절과 낙심과 유혹이라는 장애물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믿음의 힘(요일5:4-5)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숭배하고 그 신념으로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캘빈칼러지 교수인 제임스 K. A. 스미스는 그의 저서 『습관이 영성이다』를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당신(You are what you love)"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자신이 사랑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열정을 쏟아내는 것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습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은 결국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에서 결정되며, 그 정체성 안에서 선택, 행동, 태도, 그리고 자세가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황금 빛 수도꼭지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17)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용서와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은 우리 또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프러포즈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세상과 온 영역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막1:15)이 땅끝 구석 구석까지 이르게 하는 것에 있기에 그리스도인 모두를 그 일하심에 초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전용대 목사



지경 교수



목사님! 성도님!
2025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 가는 축복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사순절 나눔의 금식은 사순절(40일) 기간에 한끼씩 금식하면서, 영육에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절약한 선교비(3불X 40일)를 선교지에 보내는 영성 훈련과 사랑의 실천 캠페인 입니다. 기도, 금식, 나눔 그리고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축복된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외 임직원 일동

2025 사순절 개요 시작일: 3월 5일 ~ 종료일: 4월 19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니미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 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박세헌 목사 부 준비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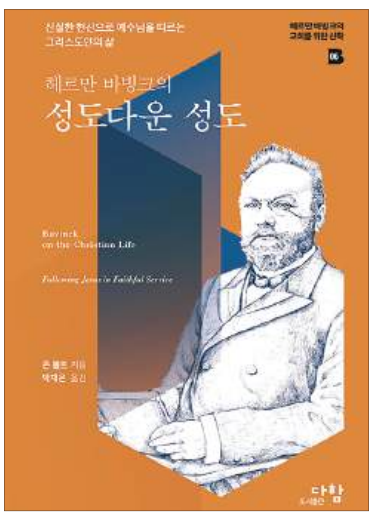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제자도

믿는 자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복음



헤르만 바빙크의
성도다운 성도

존 볼트 | 박재은 역 | 다함 |
488쪽 | 30,000원

이 책은 신자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면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해줍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했던 신칼뱅주의의 목표와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출판 다함에서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 시리즈'로 현재까지 여섯 권의 책을 출간했다. 기독교 세계관, 찬송의 제사, 설교론, 교회를 위한 신학, 일반 은총에 이어, 여섯 번째 책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 신실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머지 다섯 권의 책이 바빙크가 직접 쓴 글을 번역한 책이라면, 이 책은 존 볼트—토론토 세인트 마이클스 대학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윤리-성화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 명예교수—가 "바빙크 자신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리한 책이다. 볼트는 특히 한국어판 서문을 작성했는데, 한국 학자들과 학생들을 통하여 바빙크의 글이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한다(27쪽).

바빙크 신학의 특징을 삼위일체 신학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도 바빙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삶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제시한 삶의 방식을 '인간 경험의 모든 범주', 즉 가정, 일, 문화, 사회 등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초로서 창조와 연합, 2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본과 기독교 세계관, 3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실천으로 여러 삶의 범주인 결혼과 가정, 일과 소명, 문화와 교육, 시민사회 등에 어떻게 제자도를 드러낼 것인지 설명한다.

바빙크의 글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난해하다는 말이 아니다. 가볍게 쓴 글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임스 에글린턴은 그가 쓴 바빙크 비평적 전기에서 바빙크가 저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글을 쓰고 또 고쳐 썼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바빙크의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에글린턴이 내린 평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신학적 개념을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 정통 또는 사변적 해석을 경계하고, 실제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면서도 진부하지 않고 신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독자에게 설명 및 설득한다.

어떤 대목에서 독자는 바빙크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바빙크는 걱정할 만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관점은 그동안 계속 개혁이 요구된 개혁주의 신학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제자도로 돌아와서 바빙크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락은 사람이 받은 소명을 절대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의 결과로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그분의 형상을 담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닮아간다.

바빙크는 제자도의 기초로 복음을 진술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단순히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하거나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복음의 능력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제자도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바치는 것이다. 바빙크는 이것을 '세계관'으로 설명한다. 세계관은 안경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과 사람, 사건의 모습을 바꾼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모든 관점을 뒤바꿔놓는 삶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삶의 범주에는 바빙크가 따로 분류한 결혼과 가정, 일과 소명, 문화와 교육, 시민 사회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다. 제자도의 부르심에서 예외가 되는 삶의 조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칼빈이 중세 시대 취약했던 제자도 신학을 되살려놓은 성경적 제자도 관점이고, 바빙크는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풍요롭게 설명하고 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과 주로 따르는 것의 차이를 강제로 구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신자와 제자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가 어떻게 주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참 신자는 모두 제자다. 제자가 아닌 자는 신자가 아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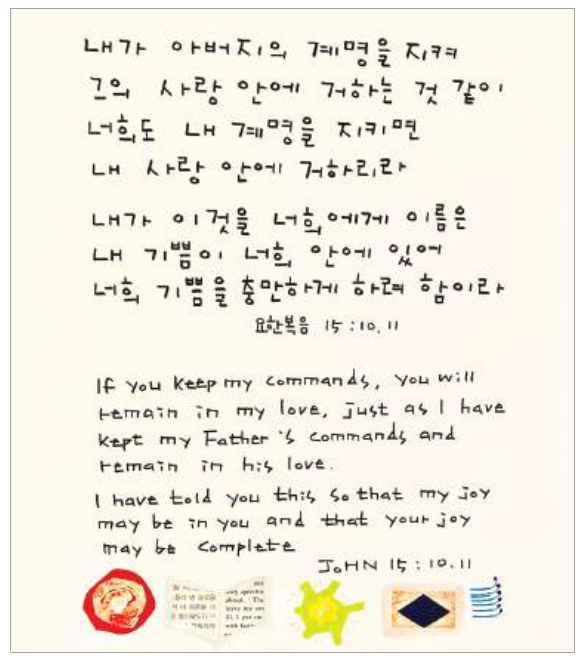


헤르만 바빙크

그들은 삶의 각 영역에서, 자기 맡은 자리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 바빙크가 이 책을 통해 독자를 권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르신 그 삶이다. 그 길이 무엇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삶을 요구하셨는지, 얼마나 광범위하고 헌신적인 자세를 동반하는지, 바빙크의 책을 통해 모든 독자가 유익을 얻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韓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선의의 경쟁〉 (1)

"용서받기 위해 죄 지어야 한다"는 드라마 〈선의의 경쟁〉 속 주인공

주인공 가족, 기독교 집안 가장
딸은 용서 위해 죄 짓는다 궤변
인성교육 결여 예리한 문제의식
자녀들 선한 양심 살리는 훈련
지식 교육보다 더 노력·전문성
교회, 율법 중요성 많이 알려야

이번 박욱주 박사님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는 LG 유플러스tv에서 제작한 드라마 〈선의의 경쟁〉을 분석합니다. 웹툰 기반의 이 드라마는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상위 1% 채화여고에 전학온 '슬기'에게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친구들, 그리고 수능 출제 위원이었던 아버지의 의문사를 둘러싼 '미스터리 걸 스릴러'입니다. 혜리, 정수빈, 강혜원, 오우리, 김태훈, 갓세븐 영재 등의 배우가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인성교육 결여로 병드는 청소년들

〈선의의 경쟁〉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드라마로, 가장 각박한 입시경쟁이 펼쳐지는 채화여고 3학년 학생들 사이의 권력투쟁을 중심소재로 삼고 있다. 어린 시절 미아가 되어 지방 보육원에서 자란 우슬기(정수빈 분)는 친아버지가 모종의 음모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찾게 된다.

지방에서 마약의 힘으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슬기는 서울에서 가장 입시경쟁이 심한 채화여고로 전학을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유제이(이혜리 분)와 얽히게 되면서 학교폭력과 따돌림, 그리고 교내 권력투쟁에 휘말린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줄거리를 선보이는 〈선의의 경쟁〉은 근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집약해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액 사교육에 매달린다. 학교 시험 문제는 학원을 통해 미리 유출된다. 학생들은 학급 내 인기와 주도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암수(暗數)와 학교폭력을 동원한다. 유제이는 우슬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동성애 감정을 이용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생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음지에서는 술, 담배, 유흥을 즐긴다. 유제이의 가족은 표면적으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을 가장하지만, 의사인 아버지는 의료사고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비열한 의료인이고, 유제이는 '용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논리로 회개를 악용한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여고생 서사에 넣을 수 있는 소위 '막장' 요소는 모조리 집어넣은 자극적인 작품으로,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마약, 학교폭력, 권력투쟁, 동성애, 입시비리 등은 분명 오늘날 우리 사회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사회악이자 불안요소임에 틀림이 없다.〈선의의 경쟁〉은 흥행을 위해 학교생활의 이 어두운 측면을 심하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공교육 현실이 심하게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작품 의도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선의의 경쟁〉은 공교육 속 '인성교육의 결여' 문제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래, '인성교육'이라는 과제는 30년 동안 교육개혁의 윤리적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인성교육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은 항상 명목상 우려에만 그쳤을 뿐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교육학 연구자 김민수 교수(동서울대 교양교육센터장)는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 개념의 근거〉(2014)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신한국 건설'이라는 모토 하에 제시된 5·31 교육개혁안이 의미가 불투명하고 모호한 '인성'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함양해야 할 '인성'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교사들의 지도를 군말없이 따르며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이것이 당시 당시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했던 '인성' 개념이 아니었을까?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철학

이것은 인성을 순전히 기능주의적으로 성격을 규정한 데서 나온 편의적 발상이다. 물론 도덕성을 적절하게 함양한 학생들은 이 기능주의적 인성 개념에 따라 모범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성'을 단지 그 외적 행동만으로 평가하는 발상은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고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선의의 경쟁〉이 묘사하는 유제이를 비롯한 채화여고 상위권 학생들의 절박하고 비열한 성적상승 노력은 '인성'에 대한 그릇된 정의의 문제를 적절하게 예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통제력이 미치는 영역에서는 모범생을 연기하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온갖 일탈과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그들의 심성에서는 도덕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 인성이란 오로지 생존과 이익을 위한 도구적 방편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교육정책 당국이 구태의연하게 내세웠던 '인성'이란 체계와 권위에 순순하게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었다. 개발독재 시대 한국사회에 만연했던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이런 '인성' 개념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공교육 현장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교육방식은 과거 우리 실정에 맞았다. 한국전쟁 직후 학생들은 스승과 사회규범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우는 한국 전통의 유교적 교육방식에 익숙한 이들이었다. 권위주의 교육법은 당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1990년대까지 상당히 발전된 중진국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서 무시할 수 없는 공을 세웠다.



〈선의의 경쟁〉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드라마로서, 가장 각박한 입시경쟁이 펼쳐지는 채화여고 3학년 학생들 사이의 권력투쟁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사회 인재 양성의 주된 방편이었던 권위주의 교육법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그리고 산업 및 기술 고도화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근본적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권위에 복종하는 인성을 강요하는 고전적 교육법은 급진적 발전과 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시대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청소년들이 자발적 태도로 학문 탐구에 열의를 갖고 도덕적 규준을 지키도록 하는 의지 발현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 정책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인내심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과제다. 이것은 기능적 효율과 행정적 편의를 추구하는 정책당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훈련하는 일은 애초 신앙과 철학의 영역에 속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선한 양심을 살리는 훈련은 입시를 위한 지식 습득에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사나 학부모 가운데 이 책임을 적극적으로 떠맡는 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교사들은 입시 성과를 내는 데 골몰하고, 학부모들 역시 성적 상승만 독촉하기 바쁘다. 모두 구태의연한 교육체계에 학생들을 무반성적으로 내맡겨 놓을 뿐이다.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는 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교육 현실은 교회에도 악영향을 준다.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 과제이자 가치다.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은 어린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미리 예견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율법의 계명이 가진 절대적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선의의 경쟁〉에서 유제이의 부모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유제이가 눈가림식으로 모범생인 척을 하니 부모들은 그 생활과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그녀의 일탈과 부도덕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유제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교육받지 못했다. 이에 그녀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어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복음의 은혜를 근본으로부터 왜곡한다.



‘세계관 전쟁’ 관점에서 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별기고] 전쟁 3년, 슬라브주의 vs 서구주의 향방은 (1)

양국 모두 100만여 명 사상자
결코 양보 못할 가치 충돌해
러시아 중심의 슬라브주의와
유럽 중심 발전 서구주의 충돌



3년째를 맞은 전쟁 관련 보도 화면. ⓒYTN

1. 들어가며

오늘도 새벽 4시쯤 귓전을 울리는 폭음 소리에 놀란 아내와 함께 잠을 깼다. 며칠 전 극초음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한 폭격에서도 미완에 그친 키이우 근교 수력 발전소를 목표로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 다시 있는 듯싶었다. 이제 웬만한 폭음 소리에는 무뎌졌지만, 킨잘이나 이스칸데르 등 초강력 미사일이 명중하여 폭음을 낸다거나 공중에서 격추되는 소리는 가히 키이우 전 도시를 흔드는 듯하여 놀라 피하지 않을 수 없다.

나름 험한 군대생활도 경험했고 1990년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선교의 삶을 통해 많이 연단됐다 생각하는 필자에게도, 하늘을 가르는 듯한 폭발음이나 드론 등이 마치 컴퓨터 전쟁 게임처럼 눈앞의 하늘에서 펼쳐질 때 ‘이러다 우리도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적인 생각에 가슴 철렁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전쟁 초기 선교사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도 폭격을 당했다. ⓒ김평원 선교사

이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부모님 품을 파고들 교회의 어린이들이나 수많은 이 땅의 어린이들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아픈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게 된다. 어제는 주일예배를 드리며 두 가지 간증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하기도 하였다. 전쟁 후 잿더미로 변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평생 살며 화목한 가족을 일궈 온 50대 후반 여성의 사연은 전쟁의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 도네츠크 폭격으로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그녀는 모두 잃었다. 이제 홀로 살아남아 키이우 근교 마을에 겨우 집을 얻어 어찌할 수 없이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에서 희망과 의지처를 찾고 싶어 3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어렵사리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큰 위로가 된다 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전쟁 발발 후 역시 어린 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중부의 시골 마을에 피신 겸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 평신도 목회자 가정이 오랜만에 전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왔다.

‘싸샤’라는 이름의 이 가정은 키이우에 남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눴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간증했다. 그 동네는 동방정교회 전통이 너무 강한 곳이라 개신교는 발붙일 수 없는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마을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온 한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세 자녀의 가장이었다. 징집법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일 시 징집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원해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개신교 형제 및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싸샤, 올레나 목회자 가정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의 전도로 개신교를 이단시했던 마을에서 시각이 바뀌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며 마을 전체 기반 시설들을 자발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었다. 자녀들을 너나없이 마을의 개신교 교회에 보내려 하는 등 새로운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라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기독 신앙인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무기력과 딜레마 앞에 때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기도제목도 어느새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에서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된다.

모든 사건을 보는 해석 속에는 각자의 처한 위치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투영돼 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동유럽 선교사 수양회에 한국에서 강사로 오신 한 목회자의 고백은 이런 의미에서 흥미롭다. 한국에서 이런저런 선교사들을 만나곤 하는데, 전쟁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과 러시아 선교사들 입장이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양쪽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한쪽은 우크라이나 네오 나치즘(Neo-Nazism)이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철 지난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또 다른 네오 나치주의 또는 신민족 사회주의(Neo-Nationalsozialismus) 행태를 보이고 있는 푸틴의 세력이 문제라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수긍되는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독 신앙인들이 단지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전쟁의 근원적 배경과 원인을 찾는다면 단견에 그칠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좀 더 근원적 이념과, 할 수 있는 한 영적(종교적)인 영역에서까지 원인을 들여다 보고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낱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 있는 러-우 전쟁이 우리 삶 속 밥상의 자연스런 화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관심과 사고의 지평이 그만큼 글로벌화되고 있는 것에 위로를 얻으면서 말이다.

2. 슬라브 중심주의와 서구 중심주의의 갈등과 충돌

그렇다면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전쟁이 3년째인 지금까지 그치기는커녕 더욱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히 50-1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분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분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러-우 양측 세력이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가치 충돌과 영적(종교) 전쟁의 성격이 전쟁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가치 충돌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적(종교) 전쟁의 측면에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의 슬라브주의자와 우크라이나의 서구주의자들 간의 가치 충돌 문제다.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 문명의 최대 황금기를 19세기 제정 러시아 시대로 본다. 수많은 세계적 대문호 및 음악가, 미술가 등이 이 시대에 꽃을 피웠다. 그리고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유입돼 다양한 사상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러시아인의 성격을 규정짓는 정체성 문제와 함께 러시아의 진로를 놓고 슬라브 중심주의와 서구 중심주의가 본격 대립하기 시작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오죽하면 톨스토이를 슬라브주의 신봉자로, 푸시킨을 서구주의 신봉자로 양대 사상 조류의 대척점에 내세웠을 정도이니, 러시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상과 이념의 지속적 갈등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슬라브주의(Slavism)’란 (슬라브족이) 서구와 다른, 러시아인들의 정신과 전통 및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등은 서구를 추종하지 말고 슬라브주의로 하나 되어 유라시아 대륙 중심국가로 강력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반면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는 러시아는 유럽과 지형적·정신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의 정신과 가치관, 법규 및 제도 등을 적극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려 노력할 때 러시아의 후진성도 극복하고 진정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19세기 중엽 나타난 러시아 사상의 한 조류다. 이러한 기나긴 논쟁과 갈등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흡수돼 72년간 묻혀 있다가 결국 표면화된 것이 1991년 12월 26일 구소련 붕괴였다. 그리고 보리스 옐친 정부의 혼란을 거울 삼아 슬라브주의 이념에 완전히 매몰된 듯한 푸틴 대통령 세력과 달리, 슬라브주의는 망국의 길이고 서구주의로의 편입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현 우크라이나 정치세력 간의 국가 노선은 언젠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양 극단의 세력이 가장 불행한 방법으로 충돌한 것이 바로 러-우 전쟁이요, 이 전쟁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가 구소련 붕괴 후 끊임없는 파열과 봉합의 과정을 거치다 결국 대폭발한 것이 전쟁의 숨겨진 원인이라는 것이다. 〈계속〉

김평원(Peter Kim)
Ph.D, University Bible Fellowship
우크라이나 키이우 선교사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Scan me!